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마리아의 기쁨      성경: 누가복음 1장 46-55절

Tag:

46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48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49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50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51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고

52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53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

54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55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눅1:46-55)

마그니피카트(magnificat), 찬가; 흔히 마리아의 찬가로 불리운다. 영적으로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다.

그러나 52-53절까지는 공산당 선언처럼 들린다.

사실 성경 곳곳에는 공산당들이 좋아할만한 구절들이 숨어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공산당의 이념을 찬성하는 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그 문맥에 숨겨져 있다. 이 말씀은 문맥을 고려해서 보면 오히려 지극히 기독교적인 말씀이다.

52절; 권세있는 자와 비천한 자/ 권세자-그 위에서 내리치심, 비천한

자-높이심

53절; 가난한 자와 부자/가난한 자-좋은 것으로 배불리심, 부자-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심.

교회는 어떤 곳인가? 비천한 자가 높임을 받는 곳. 가난한 자는 배부르게 먹는 곳, 부자는 공수로 돌아가는 곳.

-그러면 높임받은 비천한 자는 곧이어 권세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부자가 공수로 돌아갔으니 그는 곧이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로테이션?)

-대를 이어 부자/가난한 자가 있고

-부자/가난한 자였다가 가난하게 된자/부자된 자가 있다.

-대체적으로 점점 부요해지는 것이 일반적.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경건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가난했지만 부자가 되는 요인은?

-부자가 대를 이어 부요함을 유지하는 요인은?

-모두 그 핵심에 경건이 자리하고 있다. 경건을 가르치지 않는 부자, 경건을 배우지 않는 부자의 자녀는 곧 가난해진다.

결국 권세있는 자 중에 어떤 사람은 위에서 내리침을 당한다.

비천한 자 중에 어떤 사람은 높임을 받는다.

가난한 자 중에 어떤 사람은 좋은 것으로 배가 부르게 된다. (그러나 1/3까니)

부자 중에 어떤 사람은 빈손으로 돌아간다.

52절은 상벌에 관한 말씀

53절은 공평에 관한 말씀

51절 말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흠으심. 즉 부자든, 가난한 자든, 권세자든 비천한 자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흠으심.

-생각이 교만한 자?

>아직 아닌데, 척하는 자. 아직 부자 아닌데 부자인 척, (부자든 가

난하든 진짜 멋과 맛을 알고 누리고, 합리적인 가격을 매길 줄 아는 자가 겸손한 자) 비아냥거리듯 소비하는 자는 졸부. 가격으로 자신의 자존심을 삼는 자.

>가진 것이라고는 젊음 밖에 없으면서 세상 누구보다 자존심은 썩자. (재능과 가능성만 있고, 술한 스타는 인정하지 않는자. 밤 하늘의 못 별)

>권세를 양갓음의 기회로 삼는 자. 권세를 제 기분을 위해 사용하는 자. 권세를 자기편을 위해 사용하는 자. 이들은 양아치 깡패근성이 있는 폭력배에 지나지 않는다. 권세를 정죄용으로, 비판용으로 삼는 자.

>비천하면서 권세자들을 욕하는 자. 부자를 비판하는 것을 유식한 것으로 삼는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흠으신다. 즉, 주목의 대상에서 제외하신다.

#### 51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흠으실 때 그의 팔에 힘을 보이셨다.

-즉 뜻의 강함을 의미한다.

그러면 복음의 대상,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가 누구인가?

-아브라함의 자녀. 믿음의 자녀.(55)

-하나님께서 불쌍히(동정, 공감하는) 여기시는 자(54, 50) 가난하지만 겸손한 자, 부요하지만 가난한 자를 배불리 먹이느라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는 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지만 정의를 위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자. (민식이법의 피해. 링컨. 국가부도의 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마리아의 기쁨이 이런 주옥같은 시를 만들어 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기 예수를 자신이 잉태했다는 것을 알고(수태고지), 엘리사벳으로부터 확신으로 깨닫게 된 이후의 일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모든 사람은 마리아

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가난하고 비천해도 담대하게 경건생활을 하게 된다.